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총 4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현지에 진출 혹은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해주고 현지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국가와의 산업기술교류협력을 위한 창구로서,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현지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해외사무소 이야기. 그 두 번째, 인도네시아사무소 김용관 소장을 만나보았다.



김용관 소장에게 듣는 인도네시아사무소 이야기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인도네시아사무소

1. 인도네시아사무소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기원 인도네시아사무소는 지난 2006년, 한-인도네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KITC: Korea-Indonesia Industry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산업 및 기술협력을 위한 특별한 협력 사무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납세면제 등의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주재국 정부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한국과의 산업기술협력 추진 창구로서 생기원 인도네시아사무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우위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수 기술 및 제품들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양 국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협력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 인도네시아사무소의 중점 추진사업과 성공사례는?

인도네시아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술협력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이며 긴밀한 산업기술 협력기반을 구축·발전해 나가는 것, 또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또는 협력지원,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사업화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각국의 생기원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지원을 중요한 미션으로 삼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으로 금형, 주조, 섬유, 의류·봉제 분야가 주를 이루는데, 생기원의 연구책임자들과 매칭을 통해 애로기술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 지원 성공사례로는 금형기업인 '표준몰드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금형설계단계에서 추후 제품 사출 시 발생할 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표준몰드 인도네시아는 홈시어터에 들어가는 사운드바(Sound Bar) 금형설계에 성공하며 일본 아마하 전자에 납품하는 등 연 200~250만 달러의 매출 증대와 연 16억 달러의 원가 절감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